

〈나의 엠마오〉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3/11(주일) 설교 내용

누가복음 24:13-21, 28-31

1. 우리가 만약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한다면, 나중에 엠마오까지 동행했던 그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역시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하나님이 안계신 것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같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상황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또는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목원들과 그 때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고 말하는 목원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자고 해주시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말씀이 임하면 뜨거워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는 것, 듣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뜨거웠던 기억을 나눠 봅시다.

사실 생각해 보면,
세상의 쾌락적인 요소들도 종종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합니다.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 멋진 스포츠 경기..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요소는 넘쳐 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해 가슴이 뜨거웠던 기억,
그리고 그 말씀에 큰 영향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4개의 대지가 등장합니다.

- ①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신다
- ②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 ③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 ④ 제자들은 변화를 경험한다

각자의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무엇인지 나누어 주십시오.